

상황별 주식 용어 모음 총정리 PDF

1. 주식을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용어 모음

- MTS(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) / HTS(홈 트레이딩 시스템)

- 뜻 : 모바일 또는 PC로 주식 거래하는 앱

→ 어디서 마주치지? 앱에서 거래할 때, PC에서 프로그램 켤 때 볼 수 있어요.

- 매수 : 주식을 사는 것

- 매도 : 파는 것

→ 어디서 마주치지? 주문할 때 버튼에 적혀 있어요.

- 종목 : 주식의 이름 (예: 삼성전자)

→ 어디서 마주치지? 검색창이나 종목 목록에서 자주 봐요.

- 예수금, 출금가능금액 : 내 계좌에 있는,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

- 예수금은 주식 매수에 쓸 수 있는 돈, 출금가능금액은 이 중 실제로 은행 계좌로 인출 가능한 금액이에요. (매도한 금액은 D+2 이후 출금 가능)

→ 어디서 마주치지? 주문 전 잔고 확인할 때 나와요.

- 잔고 / 보유수량 :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주식과 수량

→ 어디서 마주치지? 보유종목 탭에서 확인해요.

- 체결 : 주문이 실행된 것 ↔ 미체결 : 아직 주문이 실행 안 된 것

→ 어디서 마주치지? 주문 내역 확인할 때 보여요.

- 지정가 / 시장가 : 내가 정한 가격 / 현재 시장에서 사고파는 가격

→ 어디서 마주치지? 주문창에서 선택하는 옵션이에요.

- 시가 / 종가 / 고가 / 저가 : 거래 가격
- 시가 : 해당 거래일에서 처음으로 거래된 가격
- 종가 : 해당 거래일에서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
- 고가 : 하루 중 가장 높게 거래된 가격
- 저가 : 하루 중 가장 낮게 거래된 가격

→ 어디서 마주치지? 주식 차트에서 주로 볼 수 있어요.

2. 주식을 사고 팔 때 용어 모음

- 호가 / 호가창 : 사고팔고 싶은 가격 / 가격 목록이 있는 창

→ 어디서 마주치지? 주문 전에 가격 확인할 때 봐요.

- 체결가 / 체결강도 : 실제로 거래된 가격 / 매수 vs 매도 비중

→ 어디서 마주치지? 실시간 체결 정보에 표시돼요.

- 수익률 / 평가손익 / 실현손익 : 내가 지금 벌고 있거나 실제 번 돈
- 수익률 : 내가 투자한 원금 대비 수익이 몇 %인지 보여주는 지표
- 평가손익 : 지금 주식을 팔면 벌거나 잃을 예상 수익/손실 (평가 기준)
- 실현손익 : 실제로 주식을 팔아서 확정된 수익/손실(이미 거래가 끝난 결과!)

→ 어디서 마주치지? 보유종목 밑에 금액으로 보여요.

- 수수료 / 거래세 / 제비용 : 사고팔 때 빠지는 비용들
- 수수료 : 증권사에 지불하는 '중개 수수료'
- 거래세 : 주식을 팔 때 정부에 내는 세금
- 제비용 : 수수료, 거래세 외에 모든 부대비용

→ 어디서 마주치지? 거래 완료 후 정산서에 나와요.

• 장전 / 장중 / 장후/시간 외 단일가 매매 : 주식 거래 가능한 시간대

1. 장전 시간외 종가매매 : 오전 8시 30분 ~ 8시 40분

전일 종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.

전일 종가 기준으로 실시간 체결되며, 선착순으로 주문이 들어갑니다.

2. 장전 동시호가 : 오전 8시 30분 ~ 9시

장 시작 전, 시가를 결정하기 위해 주문을 미리 넣는 시간입니다.

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지만, 주문이 모였다가 9시에 일괄 체결됩니다.

3. 장중 (정규시장) : 오전 9시 ~ 오후 3시 30분

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식 거래 시간입니다.

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며 거래가 가장 활발한 구간입니다.

4. 장후 동시호가 : 오후 3시 30분 ~ 3시 40분

장 마감 직후, 종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입니다.

10분 동안 주문이 모였다가 3시 40분에 일괄 체결됩니다.

5. 장후 시간외 종가매매 : 오후 3시 40분 ~ 4시

당일 종가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시간입니다.

선착순으로 체결되며, 정해진 가격(당일 종가)으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.

6. 시간외 단일가 매매 : 오후 4시 ~ 6시

장 마감 이후, 일정 시간마다 단일가로 체결되는 거래 시간입니다.

10분 단위로 주문이 모여 한 번에 체결되며, 실시간 가격 변동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→ 어디서 마주치지? 주식 시간 관련 공지나 알림에서 봐요.

매도가능수량 / 매수가능금액 : 지금 팔 수 있는 주식 / 살 수 있는 금액

→ 어디서 마주치지? 주문창 하단에 자동 계산돼 있어요.

3. 주식 분석하거나 아는 척 하고 싶을 때

- 시가총액 / 매출액 / 영업이익 / 순이익 : 기업의 크기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보여주는 숫자들

- 시가총액(시총) : 회사의 전체 시장가치. "지금 주식 시장에서 이 기업은 얼마?"
- 매출액 : 회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벌어들인 전체 금액
- 영업이익 : 매출에서 인건비, 임대료 등 운영비용 빼고 남은 이익
- 순이익 : 영업이익에서 세금, 이자, 기타 비용 모두 제외하고 남은 '진짜 돈'

→ 어디서 마주치지? 기업 재무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.

- PER / PBR / ROE / EPS / BPS / DPS : 기업의 수익성, 자산가치, 배당 수준 등을 나타내는 지표

- PER(주가수익비율) : 이 회사 주가가 이익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 보여주는 지표
- PBR(주가순자산비율) : 이 회사 주가가 자산(순자산)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 나타내는 비율
- ROE(자기자본이익률) : 투자자가 넣은 돈(자본)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비율
- EPS(주당순이익) : 한 주당 얼마의 순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
- BPS(주당순자산) : 한 주당 자산(회사 청산 시 받는 돈)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지표
- DPS(주당배당금) : 한 주당 얼마의 배당금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

→ 어디서 마주치지? 종목 상세 정보, 리포트 등에서 확인해요.

- 실적발표 / 컨센서스 / 어닝서프라이즈

- 실적발표 : 기업이 분기별로 매출·이익 등 경영 성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것
 - 예: "삼성전자, 1분기 영업이익 10조 원 발표"
- 컨센서스 :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'평균 실적 전망치'
 - 예: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평균이 9조 원이면 이것이 컨센서스

- 어닝서프라이즈 : 실제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온 경우
 - 예: 예상(컨센서스) 9조 → 실제 실적 11조 → “어닝서프라이즈 발생!”
 - 그럼 이럴 때는? “와 요즘 SK하이닉스는 어닝이 장난 아닌데?” 라고 흔히들 말해요.
- 어닝쇼크 : 실제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나쁠 경우
 - 예: 예상(컨센서스) 9조 → 실제 실적 7조 → “어닝쇼크 발생!”

→ 어디서 마주치지? 주식 뉴스 헤드라인에서 자주 봐요.

- 공매도 / 유상증자 / 액면분할 / 감자
 - 공매도 : 없는 주식을 빌려 먼저 팔고,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값 차익을 얻는 방식 (주가 하락에 배팅!)
 - 유상증자 :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팔고, 그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
 - 액면분할 : 한 주를 여러 주로 쪼개서 주식 수를 늘리는 것 (총 자본은 그대로)
 - 주당 가격이 낮아져서 (1주당 1,000원 → 1주당 10원) 거래가 쉬워짐
 - 감자(자본감소) : 회사가 주식 수를 줄여서 자본금을 줄이는 것

→ 어디서 마주치지? 공시나 급락 뉴스에 자주 등장해요.

4. 주식 뉴스를 볼 때

- FOMC / CPI / GDP : 미국의 경제 지표들
 - FOMC : 연방공개시장위원회. 미국 기준금리 결정 회의.
 - CPI : 소비자물가지수. 물가가 얼마나 보여주는 지표.
 - GDP : 국내총생산.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상품, 서비스의 총액.
 - GDP가 낮을 수록 경기 침체 우려가 높음.

→ 어디서 마주치지? 환율, 금리 뉴스에서 항상 언급돼요.

- 외국인 순매수 / 순매도 : 주식을 누가 얼마나 사고팔았는지에 관련 용어
 - 순매수 : 어떤 주식을 산 양이 판 양보다 많을 때
 - 예 : 외국인이 삼성전자 100만 주 사고 60만 주 팔았다 → 순매수 40만 주
 - 순매도 : 어떤 주식을 판 양이 산 양보다 많을 때
 - 예 : 기관이 LG화학 30만 주 팔고 10만 주 샀다 → 순매도 20만 주
- 어디서 마주치지? 수급 분석에서 꼭 등장해요.

5. 주식 커뮤니티에서 떠들 때

- 익절 : 수익이 났을 때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확정하는 것
- 손절 : 손해가 났지만 더 떨어지기 전에 주식을 파는 것
- 물타기 : 떨어진 주식을 더 사서 평균 매입단가를 낮추는 것
- 불타기 : 오르는 주식을 더 사서 수익을 키우려는 것
- 존버 : 손실 중이지만 끝까지 버티는 것
- 상한가 : 하루 동안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오른 상태
- 하한가 : 하루 동안 주가가 내릴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떨어진 상태
- 눌림목 : 상승하던 주가가 잠깐 조정받으며 쉬어가는 구간
- 턴어라운드 : 실적이나 흐름이 나쁘던 기업이 흑자 전환 등으로 반등하는 상황
- 세력 : 특정 종목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큰손 투자자나 집단
- 작전 : 세력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거나 내리는 비정상적 매매 행위
- 개미 :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비유적으로 부르는 말
- 테마주 : 특정 이슈나 뉴스에 묶여서 함께 오르내리는 종목
 - 예 : 인공지능 테마주, 반도체 테마주 등
- 잡주 : 시총이 작고 실적이 불안정하며, 투기성 매매가 자주 일어나는 종목. 변동성이 크고 세력 개입 가능성 높음.
- 수급 들어왔다 : 외국인·기관 등 큰손 투자자가 매수하면서 거래량이 몰리는 상황
- 박스권 : 주가가 일정 범위(상단~하단)를 벗어나지 않고 횡보하는 구간
- 타점 : 매수하거나 매도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나 가격 지점